

시인의 마을

모두가 똑같다

모두가 똑같다
 태어날 때는 똑같이 모두
 가 차별 없이
 그렇게 태어난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날거벗음도 세상을 향해
 힘찬 호흡으로 세상을 만난다
 삼사 킬로의 작은 거인처럼
 보들보들 우람한
 아기(Baby)는 나약하다
 걱정할 틈도 눈 한 번 감았다 풀
 찰라도 허락하지 않는다
 보들보들 아가는 강한 사람으로
 우리의 거대한 희망으로
 세상과 긴 호흡을 한다
 그때는 모두 자신만만하다
 세상이 가소로워 보이지만 했다
 그런, 가소로워 보이는 시간을
 십여 년 보내고
 실며시 돌아다보니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바로 노력의 차이이다
 다시 허망한 십 년을 보낸다면
 엄청난 거리감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박여범 시인·태어날 때는-전론

시詩를 담다

자신의 노력이 부족함을 탓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일이 벌어
지면, 쉽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핑계와 악리바이
를 찾기 위해 일안이다. 결국로는
'내 탓이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

신이 저지른 일이 아님을 방법을 가
리지 않고 찾으려 한다.

사람은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이
태어나, 부끄러움도 모르고 버거
벗음이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세
상을 향해 소리 지르며 태어난다.
나약하지만 강한 세상과 긴 호흡으
로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차이가
나타나, 부모의 지위나 환경이 많
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다.

가소로워 보이는 시기가 십여 년
흐른 뒤 친구를 만나면 낯익게 탄성
이 나온다. 가끔은 그가 부러워 할

투심이 일곤 했던 적이 있다. 그러
나 세월은 살대 가소롭지 않다. 가
소로운 세월은 없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른 삶 속에서도 목표를
정해 노력하는 수많은 손의 분주함
이 있다. 보일 듯 말 듯, 소리 없이
노력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에 박수를
보낸다.

가량비에 옷이 젖는다는 속담처럼,
빛깔을 하나하나가 크어 개물이 되
고 강을 어부어 바다로 나간다. 소
소한 일상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혹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타
인의 인정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마치 그것이 자식을 속이는 병
의 은밀함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앞서는 시
간이다.

키워드는 '사랑', '노력', '차이',
'혁신'이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바로 노력의 차이이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사설

노동권 보호와 알고리즘

알고리즘(Algorithm)이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
나 방법을 말한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 명령어들의 순서
를 의미한다.
아랍의 수학자인 알고리즘미
(Al-Khwarizmi)의 이름에서 유
래되었다.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효율성이다. 같은 문
제를 푸는 데 있어 결과는 같아
도 해결 방법에 따라 실행 속도
나 오차·오류 등에 차이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알고리즘이 사회적 이슈
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휴대
전화의 앱을 거쳐서 일을 하는
온라인 매개 노동,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는 2백만 명이 넘는다.
전체 취업자의 8%를 넘어섰다.
대리운전, 음식배달, 택배는 물
론 이제는 번역, 청소까지 영역
을 넓혔다.
하지만 고용주가 따로 없다는
이유로 법은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시대에 뒤쳐진 근로기준법이라
는 비난이 커지는 이유다. 일부
대리운전원은 스마트폰 앱에 플

이 넘쳐난다. 그러나 손님 안 된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기 때
문이다. 대리운전 업체가 '락
(Lock)' 즉 배차 제한을 걸은 것
이다.
기업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
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광고한다.
그러나 일단 일을 시작하면, 모
든 건 알고리즘이 지시한다. 어
디로 가라, 몇 분 안에 배달해
라, 돈은 얼마 받아라 등을 사용
자 대신, 알고리즘이 결정한다.
알고리즘 뒤에 진짜 사용자가
숨어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전통적인 고용이 아
니라, 플랫폼 노동을 빠르게 늘
리고 있다. 기업들은 이걸 빠르
게 회피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계약과 고용을
바꾸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 논란이 되자, 국
회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섰
다. 그러나 법안 이름부터 노동
이나 노동자라는 말이 없다. 온
전하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이 절실하다.

인도 막은 적치물

전주 시내 일부 주요 도로의
인도를 점령한 적치물이 넘쳐나
고 있다. 인도 위에 아무렇게 쌓
아둔 각종 적치물은 도시 미관
마저 크게 훼손하고 있다. 사실
전주 시내 일부 인도를 가로막
는 일은 이미 오래 됐다.
어떤 인도는 자전거 통행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같기 때문이다. 결국 좁
은 인도가 노점상과 보행자 그
리고 자전거까지 뒤엉켜 있다.
전주 시내에는 최근 도시재생사
업으로 일부 인도가 깨끗이 정
비되었다.
하지만 잠시 후 각종 적치물이
인도를 점령한 곳이 많다. 결국
두 명이 걸을 수 있던 거리가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연탄이 인도 한 가운데를 점령
하기도 했다.
꽃집 앞에는 각종 화분들이 인
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
부 시장의 경우 패라솔 아래서
각종 나물 등을 파는 이들이 인
도에서 장사를 한다. 스티로폼
박스과 나무박스가 보행자들의
이동을 방해한다.

어떤 인도 위에서는 차량을 버
것이 주차하고 장사하는 사람
도 있다.
모두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침
해하는 일이다. 비양심적인 이들
의 불법 인도 점령으로 보행자
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았다. 그러나 이는 유명무실하
다.
전주 곳곳에서 보행자들의 보
행권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일부 도로는 상황이 심각하
다. 판매할 물건을 인도에 쌓아
두는 일은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은 아예 사
라졌다. 불법 노점상들은 인도를
점령한 채 장사를 한 지 오래다.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당국은 생계형이라는 이유 때
문에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한
다. 그렇다면 차라리 노점상을
양성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인도를 점령한 적치물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개
선책이 시급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라트비아에 쓰레기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1일(현지시간)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시민들이 쓰레기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를 찍고 있다. 이 트리는 겨울 휴가철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덜 버리고 가정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도록 장려하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불법 낙태 상징 옷걸이를 들고 시위하는 폴란드 시위대



1일(현지시간) 폴란드 비르사바의 의회 앞에서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는 낙태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불법 낙태의 상징인 옷걸이를 들고 있다. 폴란드 의회는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징역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투표를 통해 부결했다. 이 법안은 임신중절에 대해 5년에서 최대 23년까지의 징역형과 경우에 따라 중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